

조선조에 있어서 『주자가례』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李 承 妍*

《 目 次 》

- | | |
|-------------------------------|----------------------------------|
| I. 문제의 제기 | 2. 조선주자학자의 『주자가례』 인식 |
| II. 『주자가례』에 관한 의혹과 위서설 | IV. 『주자가례』 시행에 있어서의 그 모
순과 한계 |
| 1. 未完成로서의 『주자가례』 | 1. 『주자가례』의 시행을 위하여 |
| 2. 『朱子家禮』의 위서설을 중심으로 | 2. 그 모순과 한계 |
| III. 조선주자학자의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 | V. 결 론 |
| 1. 退溪의 『理學通錄』 |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한국학의 주요한 논점이 ‘조선주자학’의 主體性, 혹은 아이덴티티를 규명하는데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조선주자학’의 주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조선주자학’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러한 시각은 ‘조선주자학’ 연구가 어느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거나 어느 특정한 분야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을 출발점으로 『주자가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주자가례』는 한국학 가운데서도 특히 소외되어 있는 연구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자가례』의 수용은 조선에 있어서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뿐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혁명이었다. 『주자가례』야말로 고려와 조선을 구분짓는 분기점이며, 조선을 조선으로 규정하여 간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주자가례』가 조선에 끼친 절대적 영향력이 절대성으로 부터 우리는 어떻게 ‘조선주자가례’의 주체성을 발견해 낼 것인가? 오랫동안 우리들이 『주자가례』 연구를 경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온 것은 이 ‘절대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주자가례’의 주체성을

* 大阪市立大學 大學院.

새롭게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절대성’의 의미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주자가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¹⁾라는 지극히 일반화된 테제를 재검증해 봄으로써 ‘조선주자가례’의 특질을 해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주자가례』가 표현 그대로 절대적인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선주자가례’의 본질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조선주자가례’의 주체성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테제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테제로서 어떤 문화가 외래문화로서 타국에 이식되어질 때 ‘變容’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극히 보편적인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절대성’과 ‘變容’이라는 두개의 모순된 개념을 중심으로 ‘조선주자가례’의 본질과 그 주체성의 문제를 해명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조선주자가례’의 특질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가례고증』을 始點으로 저술되기 시작한 『주자가례』 주석서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선주자가례’의 본질, 혹은 주체성의 문제는 이 『주자가례』 주석서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자가례』 주석서를 論外로 하고 있는 본고가 ‘조선주자가례’의 본질, 혹은 주체성의 문제를 提言하는 것은 모순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논의하기에 앞서 『주자가례』 주석서가 저술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혹은 『주자가례』를 실시하고자 했던 당시의 조선주자학자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주자가례』의 시행에 따른 모순과 한계를 밝히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조선주자가례’의 특질을 규정하려 하기 이전에 먼저 그 같은 특질을 만들어 낸 동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 도구로 인식되어진 『주자가례』가 점차 ‘절대적’으로 尊崇되어가는 한편, 『주자가례』 ‘조선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순상황을 통해 ‘조선주자가례’의 주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起點을 발견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가례』의 조선화”는 본래부터 『주자가례』라는 서적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과 주자예론 혹은 『주자가례』의 이론체계가 안고 있는 모순점의 극복을 통해 기도되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조선화”의 기점을 밝히고자 한다.

1) 阿部吉雄氏は「文公家禮について」(『阿部先生古稀祝賀記念論文集』, 1936年)에서 “조선주자학자의 머리에는 태반이 禮論과 四端七情理發氣發에 관한 것이었다. 더우기 그 禮論이라는 것은 다름아니라 禮論에 관한 것이며 時俗도 家禮에 따랐다는 것은 史家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바이다”(p. 37)라고 『朱子家禮』의 영향력을 論하고 있다.

끝으로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본고에서 다룬 『주자가례』의 ‘조선화’는 이론적 측면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것이다. 즉 『주자가례』가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변용되어가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朱子學을 하나의 이상으로서 동경했던 당시의 주자학자들이 ‘조선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계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조선화’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 제시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인 것이다.

Ⅱ. 『주자가례』에 관한 의혹과 위서설

조선에 이르러 ‘절대화’—물론 그 ‘절대’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의 길을 걸었던 『주자가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의문의 책이었다.

淸의 王白田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주자가례』는 주자의 저작이라는 확실한 기록도 없으며, 朱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된 적도 없고 단지 朱子死後에 출현하여 세간에 통용된 미완성의 저작에 불과했다. 미완성의, 그것도 의문의 『주자가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 조선에 있어서 이 같은 이중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졌던 것일까?

본장은 조선에 있어서의 『주자가례』가 가진 두개의 얼굴을 밝혀내기 위한 전단계로서 먼저 『주자가례』가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어진 서적인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1. 未完成으로서의 『주자가례』

『朱子家禮』의 위서설을 定說化시킨 『四庫全書總目』은 『주자가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自宋以來 遵而用之 其爲朱子之書 幾無可疑者²⁾

例文을 통해 『朱子家禮』는 宋以來 朱子의 저서로서 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고전서총목』은 王白田의 위서설을 論據로 이 일반화된 통념을 깨뜨려버리지만, 위서설과는 별도로 『사고전서총목』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주자가례』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주자가례』 판본과 서목류를 中心으로 『주자가례』가 위서화되는 원인

2) 『四庫全書總目』卷二十二, 經部, 禮類四.

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朱子家禮』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주자가례』의 위서설은 『주자가례』가 朱子 死後에 등장한 미완성본이라는데 근거하고 있다.

『주자가례』의 판본을³⁾ 중심으로 그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하자.

1) 『性理大全』의 『주자가례』

明의 건국이데올로기로서 채택된 유교이념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편찬된 『성리대전』은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儒臣에게 命하여 五經四書を 編修하게 하고 諸家傳註를 모아 大全을 만들게 했다. 무릇 經義에 發明이 있는 것은 取하고 經旨에 거슬리는 것은 버렸다. 또한 先儒가 이룬 書 및 論議格言을 모아.....名하기를 性理大全이라 하였다.⁴⁾

『朱子家禮』는 ‘經義에 발명이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先儒가 이룬 書物’로서 『성리대전』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本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당시의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은 『性理大全』이 가장 큰 비중을 둔 楊復의 附注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편의상 관계있는 부분만을 선별하기로 한다.

(a) 先生이 母喪을 입었을 때 古今을 參酌하고 그 變禮를 갖추어 喪葬祭禮를

3) 『Family rituals』(Ebrey, B. tr. Princenton, 1991)에 의하면 『주자가례』의 판본은 十卷本, 四卷本, 五卷本, 七卷本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十卷本: 宋의 『文公家禮集注』와 元의 『纂圖文公家禮集注』가 있다. 前者에는 楊復의 附注와 劉垓孫의 增注가 실려있고, 後者는 前者를 보완한 것으로 劉璋의 補注가 첨가되어 있다. 通冠昏各一卷 喪禮五卷, 祭禮二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圖는 各卷에 산재한다.

② 四卷本: 『성리대전』의 판본이다. 내용은 元의 十卷本과 거의 일치하나 圖를 보아一卷으로 通冠昏을一卷으로 喪禮와 祭禮를 합쳐 二卷, 전부 四卷으로 구성된 것이 十卷本과 다르다.

③ 五卷本: 通冠昏喪祭禮各一卷 그리고 부록一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는 보이지 않는다.

④ 七卷本: 『성리대전』을 모범으로 한 조선판본이다. 내용은 『성리대전』과 일치하나 通冠昏禮各一卷 喪禮三卷 祭禮一卷으로 전부 七卷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4) 『性理大全』序

「.....命儒臣編修五經四書, 集諸家傳註, 而爲大全. 凡有發明經義者取之, 悖於經旨者去之. 又輯先儒成書及其論議格言.....名曰性理大全」

완성하였다. 또한 여기에 冠婚을 추가하여 家禮라 名하였다.⁵⁾

楊復은 朱子が 母喪을 당했을 때 『喪葬祭禮』라는 禮書를 완성했으며 後에 이 禮書를 바탕으로 『朱子家禮』를 저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b) (家禮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一童行이 이를 훔쳐 달아났다. 先生의 易簣에 그 책이 처음으로 출현하여 세간에 통용되었다.⁶⁾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완성된 『주자가례』는 분실되며 朱子死後 우연히 나타나 세간에 통용되어진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c) 애석하게도 가례는 분실된 채 선생의 死後에 출현 再修하여 萬世에 도움을 주기에는 이르지 못했다.⁷⁾

楊復은 이 완성된 『주자가례』를 朱子の 완성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주자가례』가 주자의 初年作이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며 晩年에 朱子が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분실된 뒤라 수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楊復의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例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 先師는 晩年 疏家の 잘못을 알았으나 수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家禮深衣曲 밑에 鄭註를 붙여 疏家の 오류를 바로 잡았다. 이로써 先師의 晩年の 定說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⁸⁾

(e) 家禮는 初年本이다. 後에 先生이 行한 禮……이와 같은 것은 모두 後에 議論하여 결정한 것을 바른 것으로 한다.⁹⁾

즉 楊復은 『주자가례』를 朱子の 未完成本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朱子에게는 이미 만년의 定論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楊復이 『주자가례』에 附注를 수록한 것 또한 楊復과 같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5) 上同 卷十九 家禮二

「先生服母喪 參酌古今 成畫其變 因成喪葬祭禮 又推之於冠婚 名曰家禮」

6) 上同

「既成 爲一童行竊之以逃 先生易簣 其書始出 行於世」

7) 上同

「……惜其書既亡 至先生沒而後出 不及再修 以幸萬世」

8) 上同

「先師晚歲知疏家之失 而未及修正 愚故著鄭註於家禮深衣曲祛之下 以破疏家之謬 且以見先師晚歲已定之說」

9) 上同, 卷二十 家禮三

「……蓋家禮乃初年本也 後先生之所行之禮……若此之類 皆從來議論之定者爲正」

2) 『家禮儀節』¹⁰⁾

『가례의절』은 『성리대전』보다 약 六十年後에 저술된 책이다. 丘濬이 그 序文에서 밝힌 것처럼 그가 『가례의절』을 저술한 동기는 『주자가례』를 간략히 하여 그 시행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¹¹⁾ 특히 『가례의절』은 최초로 武林應氏의 「家禮弁」을 소개한 책이며 『주자가례』와 혼동될 만큼 일반에게 널리 읽혀져 조선만이 아니라 日本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책이다. 위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주자가례』에 관한 당시의 견해만을 검토하기로 하자. 楊復의 附注는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참고하기로 하겠다.

(f) 黃氏鶯이 말했다. 그 책이 완성되었으나 분실되어 先生의 易簣에 나타났
다. 지금 세간에 행해지고 있으나 선생의 晩年の 論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
배우는 자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¹²⁾

(g) 陳氏淳이 말했다. 嘉定辛未年 江陵을 지나칠 때 선생의 季子敬子が 가례
一編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예전에 잃어버린 책이다. 어떤 士人이 이를
얻어 선생의 장례식에 갖고 왔으므로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¹³⁾

(h) 李氏方子が 말했다. 乾道五年九月 先生의 母 祝令人의 喪이 있었다. 선
생은 居喪의 禮를 다하고 古今을 參酌하여 喪葬祭禮를 완성했다. 이에 冠昏을
추가하여 一編으로 하고 家禮라 命하였다.¹⁴⁾

이들은 『주자연보』나 『행장』등에 수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기록이다. 그 내용이 楊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가례의절』 또한 『성리대전』과 동일한 견해를 짐작하게 한다. 다만 거기에 새로운 견해가 또 하나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

10) 註 2)의 판본을 舊本이라 한다면 『가례의절』은 新本으로서 『주자가례』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11) 『家禮儀節』序
「知世之行是禮者蓋亦鮮焉. ……竊取文公家禮本註 約爲儀節 而易以淺近之言 使人易曉而可行」

12) 『家禮儀節』卷一「文公家禮序」
「黃氏鶯曰 其書始成 爲一行童竊以逃 先生易簣 其書始出 今行於世 然其間有與 先生晚歲之論不合者 故未嘗爲學者道也」

13) 上同
「陳氏淳曰 嘉定辛未歲 過江陵 先生季子敬子倅郡出示家禮一編 云 此往年僧寺所亡本也 有士人錄得 曾先生葬日携來 因得之」

14) 上同
「李氏方子曰 乾道五年九月 先生丁母祝令人憂 居喪畫禮 參酌古今 因成喪葬祭禮 推之於冠婚 其爲一編 命曰家禮」

고하기로 하겠다.

- (i) 周子復이 말했다. 文公門人三山楊復이 條의 밑에 註를 단 것은 家禮에 功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시 이 註를 뽑아 책의 뒷편으로 보낸 것은 거기에 文公本書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⁵⁾

周子復은 朱子の 晩年の 說을 근거로 한 楊復의 附注가 미완성인 『주자가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朱子の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丘濬이 『가례의절』을 저술한 동기 또한 周子復의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3) 五卷附錄 一卷의 『주자가례』

이 판본이 『사고전서총목』에서 지적된 五卷本이다. 이 판본의 특징은 예문 (i)에서 밝힌 것처럼 양복등의 註를 本文에 실지 않고 부록으로 재편찬한 것이다. 이는 『주자가례』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주자가례』의 판본이 복잡해지고 注釋 또한 번잡해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사고전서간명목록』의 “自明以來 坊刻鼠亂 殆不可讀”라는 말¹⁶⁾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五卷本の 『주자가례』 출현경위에 관한 기록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예문이다.

- (j) 楊復은 말했다. 가례가 완성되었으나 분실하였으므로 再加考訂에 미치지 못했다. 선생의 死後 그 책이 출현하였으므로 나는 선생의 後來의 考訂議論을 취하여 친구들에게 함께 참고하여 보고자 했다.¹⁷⁾

이 楊復의 說은 『주자연보』의 기록으로 추측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例文의 포인트는 『주자가례』의 출현이후 제자들이 모여 朱子の 만년의 說을 참고 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이는 後에 『주자가례』가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것이라는 의혹을 남겼던 것이다.

15) 上同

「周子復曰 文公門人三山楊復 附註於遂條之下者 可謂有功於家禮矣. 復別出之以附干書之後 恐其門斷文公本書……」

16) 『四庫全書簡明日錄』 卷二, 經部四, 禮類

17) 『朱子家禮』 五卷本 부록

「楊復云 家禮始成而失之 不及再加考訂 先生既沒 而書始出. 愚嘗竊取先生後來之考訂議論 以與朋友共參考云。」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자가례』는 주자의 初年作으로 일단 완성되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未完成이었으며 未完成인채 세간에 통용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은 당시의 書目類를 참고하기로 하겠다.

(2) 書目類에 보이는 『주자가례』

本章에서 서목류를 참고하기로 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 『주자가례』에 관한 당시의 일반적인 평가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宋史』와 『直齋書錄解題』 및 『문헌통고』를 인용하기로 했다.

① 『宋史』—朱熹, 家禮一卷¹⁸⁾

② 『直齋書錄解題』—朱氏家禮一卷. 朱熹撰¹⁹⁾

③ 『文獻通考』—朱文公家禮²⁰⁾

「朱子自序曰……」

「李氏曰, 先生居母祝今人憂……」

「楊氏曰, 愚按家禮一書, 今之士大夫……」

위의 例文을 통해 『朱子家禮』가 宋明에 걸쳐 朱子の 저작으로 인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宋史』와 『直齋書錄解題』가 『朱子家禮』를 一卷으로 규정한 것은 후에 판본이 얼마나 복잡화 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판본의 복잡화는 또한 후에 『주자가례』 위서설이 등장하는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통고』는 『주자가례』의 판본은 明記하지 않았으나 「가례서」를 비롯해 朱子の 高弟인 이방자 양복등의 說을 수록함으로써 『朱子家禮』의 主旨와 출현경위를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용은 생략하였으나, 이같은 『문헌통고』의 내용에서도 당시의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주자가례』 주석서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2. 『朱子家禮』의 위서설을 중심으로

『朱子家禮』 위서설은 元의 武林應氏에 의해 제기되어 淸의 王白田에 이르러 정

18) 『宋史』 卷二百四. 志一百五十七 예문 三

19) 『直齋書錄解題』 卷六 禮注類

20) 『文獻通考』 卷一百八十八 經籍十五

설화 되었다. 그러므로 朝鮮中期를 대상으로 하는 본고의 경우 王白田의 위서설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특히 본고의 목적이 위서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서설이 조선주자학자의 『주자가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히는데 있으므로 王白田의 위서설은 더우기 論外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武林應氏의 위서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王白田의 說은 본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前節과 중복되는 부분의 인용은 생략한다.

(1) 武林應氏와 구준

武林應氏가 제안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위서설을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그가 제안한 자료²¹⁾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 紹熙甲寅八月 「跋三家禮範」에서 文公先生은 司馬氏 등의 諸說을 참고하여 이것에 첨부할 예정이었으나 병이 깊어져 완성할 수가 없었다²²⁾라고 하였다.

(b) 勉齋先生 「家禮後序」에서 文公先生이 先儒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家禮를 완성했다. 그 만년에 이르러 家鄉侯國王朝의 禮를 의논하였으나 탈고하지 못한 채 작고했다²³⁾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武林應氏는 ① 「家禮」를 저술하고자 하였으나 병이 깊어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a)가 光宗紹熙甲寅의 일인데, 考宗乾道己丑, (b)의 '家禮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²⁴⁾ ② 또한 (b)의 '탈고하지 못한 채 작고했다'는 「家禮」라는 책이 없었다는 증거이다.²⁵⁾ 그리고 오늘날의 『주자가례』는 문인들의 위서이다²⁶⁾라고 위서설을 주장한다.

그럼 이번에는 武林應氏의 僞書說을 최초로 소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

21) 『家禮儀節』 卷一 「文公家禮序」

22) 上同

「紹熙甲寅八月 跋三家禮範云 某嘗欲引司馬氏之書 參考諸家之說……願以衰病不能及已」

23) 上同

「勉齋先生家禮後序云 文公以先儒之書……更爲家禮. 其晚年 討論家鄉侯王朝禮 未及脫稿而先生沒 此百世之遺恨也」

24) 上同

「光宗紹熙甲寅 文公已於三家禮範 自言願以衰病 不能及已 豈孝宗乾道己丑 已有此書」

25) 上同

「未及脫稿 而文公沒 則是書非文公所編 不待弁而明矣」

26) 上同

「此門人編入 以爲張本耳」

하였던 丘濬의 『가례의절』을 검토하기로 하자.

그의 비난은 ① 「家禮序」²⁷⁾가 있는데 『家禮』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²⁸⁾ ② (b)의 ‘탈고하지 못했다’는 『儀禮經典通解』를 가리키는 것으로 「家禮」와는 관계가 없다.²⁹⁾ ③ 黃·陳·李·楊은 모두 朱子의 제자들인데 근거없는 얘기를 할 리가 없다³⁰⁾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다음에는 이상의 구준과 무림옹씨의 說을 기반으로 王白田의 위서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王白田과 夏炘

王白田의 위서설은 『白田草堂存稿』의 「家禮考」에 明示되어 있다. 그의 위서설을 전부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가장 중요한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이방자는 『주자연보』에서 乾道庚寅 「가례」가 완성되었다고 했다.³¹⁾ (b) 황간의 『주자행장』에는 주자가 편찬한 「가례」는 세간에 통용되었으나 후에 정정된 곳이 많고 올바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³²⁾ (c) 紹熙五年(甲寅) 朱子는 『三家禮範』의 「발문」에서 「가례」를 저술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했다³³⁾고 하는 세가지 기록이 내용상 서로 모순된다.

둘째 『家禮』의 서문이 『家禮』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³⁴⁾ 이에 좀더 설명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즉 『朱子家禮』는 宗法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三家禮範』의 서문이나 「가례서」의 양복附注에는 『家禮』가 장재, 정이천, 사마광의 說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명언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종법을 강조하지

27) 「家禮序」는 『朱文公文集』 卷七十五에 수록되어 있다. 구준은 「결코 주자가 아니면 쓸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으며 阿部吉雄氏도 구준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家禮序」는 「反僞序說」의 논거였다.

28) 上同

「且序文決非朱子不能作」

29) 上同

「所謂未及脫稿者 指經傳通解也 非謂家禮也」

30) 上同

「黃陳李楊諸子 皆出自朱門 親授指教 皆不以爲疑」

31) 『白田草堂存稿』 卷之二 「家禮考」

「李公晦序年譜 家禮成於庚寅居祝孺人喪時 文集序不紀年月……」

32) 上同

「黃勉齋作行狀 但云 所輯家禮……既不信成於母喪時 亦不言其亡而復得……」

33) 上同

「甲寅八月 跋三家禮範後云……甲寅距庚寅 二十年 庚寅已有成書 朱子雖耄老 豈盡忘之至是……」

34) 上同

「其序文亦依仿禮範跋語 而於家禮反有不合. 家禮重宗法 而程張司馬氏所未及……」

않았으며 특히 사마광의 『書儀』는 大家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째, 『家禮』는 「가례서」를 제외하면 朱子의 他저서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³⁵⁾

이상의 세가지 논점은 그 논리가 정연하여 결국 『사고전서총목』이 이 說을 지지하게 되고 위서설은 定說化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후 이 王白田의 說을 반박하려는 시도가 全無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구준의 反위서설을 계승한 夏旻은 『朱子文集』에 산견하는 「祭儀」를 『朱子家禮』로 간주하여 이 王白田의 說을 논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⁶⁾ 그러나 그 論理性이 王白田을 능가하지 못했으므로 위서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反위서설은 그 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에 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日本에서 최초로 위서설에 흥미를 불러일으킨 阿部吉雄氏의 「文公家禮について」는 夏旻의 反위서설을 기반으로 『朱子家禮』가 「祭儀」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논증한 兼永芳氏의 「朱文公家禮の一考察」³⁷⁾, 王白田의 反위서설을 全文 인용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세가지 논점을 전부 논박한 上山春平氏의 「朱子の『家禮』と『儀禮經傳通解』」³⁸⁾, 그리고 『주자가례』의 내용을 卷별로 분석하여 朱子思想과의 일치여부를 밝힌 樋口 勝氏의 「『文公家禮』の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³⁹⁾ 등이 최근 日本에서 反위서설을 제기한 논문들이다. 이들은 모두 『주자가례』를 朱子의 作으로, 그리고 적어도 朱子의 思想을 바탕으로 편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中國에서 反위서설을 제기한 논문으로서는 束景南氏의 「朱熹『家禮』眞僞考弁」⁴⁰⁾가 있다. 이 논문은 兼永氏와 동일한 입장에서 「祭儀」와 『주자가례』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나 특히 束景南氏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朱子家禮』가 「祭儀」를 포함하면서 그것을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고 있다.

「祭儀」는 二程의 說을 근간으로 하며 『家禮』는 司馬의 說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前者는 번잡하고 後者는 간략하다. 司馬光의 『書儀』는 『儀禮』를 중시하며 朱子禮學의 특징은 『儀禮』를 經으로 하고, 『禮記』를 傳으로 하며, 또한

35) 上同

「文公語錄 自家禮序外 無一語及家禮者」

36) 『述朱質疑』卷之七 「跋家禮」 참고

「……荅張欽夫書云 祭禮修定處甚多……祭禮只是於溫公書儀內 少增損之……以上諸條 雖不明言家禮 然曰草具 曰修定 曰嘗修 非朱子祭禮明有一書乎」

37) 『支那學研究』21, 1958.

38) 『東方學報』五十四, 1982.

39) 『東洋の思想と宗教』

40) 『朱熹佚文集考』(江 古籍出版社, 1991)

『儀禮』로 부터 『家禮』에 이르는 변천은 朱子의 初年の 禮學이 어떻게 변화하여 갔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좋은 자료이다.⁴¹⁾

「祭儀」를 『朱子家禮』와 관련지우는 것, 『家禮』의 취지를 簡便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선주자학자의 견해와 일치하므로 그 全文을 인용하여 보았다.

위서설의 진위여부를 論外로 하더라도 『朱子家禮』 위서설이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그만큼 『朱子家禮』가 의혹의 서적인 동시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한 불가사의한 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既述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은 『朱子家禮』가 저술 및 출현과정에서 부터 의혹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이 의혹의 서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시하는 것이 주자학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길로 믿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이 믿음에 무조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이유로 가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章에서 『주자가례』에 관한 그들의 태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조선주자학자의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

— 未完成으로서의 『朱子家禮』 —

『주자가례』의 전래기는 대개 고려말기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주자가례』의 판본이 무엇이었는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자가례』의 출현경위등을 고려할 경우, 이미 『家禮圖』나 楊復의 附注등이 갖추어져 있는 판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⁴²⁾ 만약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주자가례』는 전래기부터 未完成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자가례』가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조선중기 부터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⁴³⁾ ‘미완성’으로서의 『주자가례』가 구체적으로 인식된 것은 『가례의절』이 전래하고 부터라고 할 수 있다.⁴⁴⁾ 물론 본고에서 다루어

41) 上同 p. 684 참고.

42) 『宋史』등에 明記되어 있는 『朱子家禮』一卷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은 불가능하나 楊復이 朱子의 直弟라는 사실로 부터 이러한 단정을 내려도 좋을 듯하다.

43) 『朱子家禮』가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성리대전』을 연구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즉 『朱子家禮』(『性理大全』 판본)의 통례와 祭禮를 재편찬한 이언적의 『봉선잡의』, 후의 『주자가례』 주석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퇴계의 「김도성가례강독」(『退溪全集遺集外編』)등이 저술되면서 부터 『朱子家禮』가 구체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44) 『性理大全』의 판본이 조선 『朱子家禮』의 근간이 된 것은 사실이나 『가례의절』에 의해 무림옹씨의 위서설 및 「가례도」의 불비가 확실히 지적되었던 것이다.

질 주자학자의 문집 가운데 『주자가례』의 위서설을 인정하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위서설의 전래가 '미완성으로서의 『주자가례』'를 강하게 인식시켰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중기의 주자학자가 『주자가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하자. 개인문집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선 주자학을 선도하였던 퇴계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하며, 개인문집은 『주자가례』 주석서와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退溪의 『理學通錄』⁴⁵⁾

여기에서 退溪의 『이학통록』을 별도로 취급한 것은 조선주자학에 있어서의 퇴계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의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朱子の 『연보』나 『행장』에는 다양한 판본이 있으나 그 가운데 퇴계집주의 판본은 조선만이 아니라 日本에도 영향을 끼쳤으므로⁴⁶⁾ 특히 그 내용을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다.

먼저 退溪가 자신이 注를 첨부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보도록 하자.

宋史를 살펴보면 先生의 本傳이 크게 생략되어 있고, 연보 및 언행록도 역시 서로간에 詳略이 있다. 지금 연보에 실려있는 황씨행장을 주로 하고, 행장의 미비한 곳은 史譜錄을 旁采하여……⁴⁷⁾

위에서 밝힌 것처럼 퇴계는 황간의 『주자행장』을 모범으로 하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注를 덧붙였던 것이다. 다음은 『주자가례』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다.

(a) 어머니를 建陽後山天湖의 양지바른 곳에 장사지내고 그 계곡을 한천이라 하였다. 무덤 옆에 거처하였으나 旦望에는 돌아와 几筵에 奠하고 家禮를 완성했다.⁴⁸⁾

45) 『增補退溪全書』(『대동문화연구소』) 참고.

46) 日本에서 간행된 『주자행장』은 퇴계의 『理學通錄』의 일부이다. 日本에서는 이를 『주자행장집주』라 부르고 있는데 日本의 崎門學派에 의해 특히 숭상되었다.(佐藤 仁의 「주자행장해제」 참고)

47) 上同, 宋季元明理學通錄卷之一.

「按宋史 先生本傳太略 年譜及言行錄 亦有互有詳略 今以年譜所載黃氏行狀爲主 而狀所未備旁采史譜錄……」

48) 上同

「譜 葬母氏於建陽後山天湖之陽 命其谷曰寒泉 日居墓側 且望則歸 奠几筵 家禮成」

(b) 家禮는 세간에서 흔히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 損益이 많았으며 개정하지는 못했다.⁴⁹⁾

(a)는 『주자행장』의 「乾道六年」조에 퇴계가 注를 덧붙인 것이고, (b)는 황간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明記한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 『주자가례』를 미완성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정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간주한 퇴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서설의 쟁점이 된 「乾道六年」이 퇴계에게 있어서는 그리 큰 모순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주자학자의 『주자가례』 인식

이번에는 이러한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을 문집 속에서 확인하여 보기로 하겠다. 편의를 위해 조선중기부터 저술되기 시작한 『주자가례』 주석서와 그 이전의 개인문집을 따로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개인문집을 중심으로

예문을 중심으로 조선중기 『주자가례』가 어떻게 인식되어졌으며,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인식에 정통주자학임을 주장하였던 이들이⁵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朱子家禮』와 「古禮」의 불일치

退溪의 「理學通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朝鮮에 있어서 『朱子家禮』는 朱子の 未完成本으로 인식되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주자가례』에 관해 보다 자유로운 의문제기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조선에 이르러 『주자가례』에 관한 가장 큰 의문으로 제기된 것은 『주자가례』가 「古禮」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朱子の 제자인 양복 등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나⁵¹⁾ 조선주자학자들은 그들의 說에 근거하여 『주자가례』와 「고례」의 비교를 보다 철저히 행하고 어느 쪽이 옳은가를 검증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에 그 實例를 볼 수 있다.

49) 上同

「所謂家禮世多用之 然其後亦多損益 未暇更定」

50) 조선의 학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朱子學者라 믿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다 절대적으로 주자학을 신봉했던 자를 구별하여 지칭하고 싶다.

51) Ⅱ章의 예문 참고.

朱子は 禮가 極毀한 날을 당하여 一時 復古의 단서를 만들었다. 家禮가 簡便을 많이 따른 것은 本意가 아닐 것이다. 지금 經에 의거하여 練의 衣裳을 만들어야 할까,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者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⁵²⁾

婦人喪服은 한결같이 家禮에 따라 만들고 있다. 그러나 家禮의 家は 禮經에 따르는 것을 正으로 삼고자 한다.⁵³⁾

위의 예문은 練服에 관한 盧伊齋의 질문이며, 그 다음의 例文은 婦人의 喪服에 관한 질문이다. 이 두개의 例文은 당시 「古禮」의 권위로 『朱子家禮』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일련의 학자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家禮序」에서 주자가 ‘是以嘗獨究觀古今之籍 因其大體之不可變者, 而少加損益於其間’이라 밝히고 있는 것처럼 朱子가 『朱子家禮』를 저술한 동기는 ‘古今의 절충’이지 ‘古禮에로의 復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만약 「家禮序」를 朱子의 親作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주자가례』와 「古禮」를 둘러싼 논쟁은 朝鮮末期에까지 이어져 결국 「朱子家禮派」와 「古禮派」라는 두개의 계보를 형성하게 된다.⁵⁴⁾ 이 논쟁의 의미는 다음 章에서 논의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나, 이것이 『주자가례』 절대화의 起點인 동시에 ‘조선화’의 起點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두고 싶다.

2) 「가례도」에 관한 비판⁵⁵⁾

「가례도」의 모순에 관해서는 구준이 『가례의절』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 있으나⁵⁶⁾ 朝鮮에 이르러 더욱 강하게 부정된다. 그것은

……世人들이 家禮圖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그 圖를 믿지 않으며 급기야는 올바른 곳까지 고치려 들기에 이르렀다.⁵⁷⁾

- 52) 『퇴계선생전집』 속집 卷三 書.
「朱子當禮極毀之日 姑爲復古之漸. 家禮多從簡便非本意也 今當據經作練衣裳 或有論不以爲然者否」
- 53) 『寒岡全書』 卷三 書.
「婦人喪服一從家禮爲之 而如有好禮之家 願以禮經爲正」
- 54) 「朱子家禮派」와 「古禮派」의 개념으로 조선예학사를 설명하려는 논문으로서는 정옥자씨의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지두환씨의 「조선후기 예송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 55) 「가례도」가 자주 논의되어진 것은 『性理大全』을 판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가례의절』의 비판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 56) 구준은 『가례의절』에서 「가례도」의 오류를 여섯가지를 들어 비난하고 있다(『가례의절』 卷一, 문공가례서 참고)
- 57) 『귀봉집』 卷六, 禮問答, 答浩原問
그 밖에도 「가례도」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는 「文公家禮, 而家所載圖, 自今觀之 似有未解……」(『퇴계선생문집』 卷三十九 書) 「祠堂圖多與本文不相應 未詳何意」(『퇴계선생문집』 卷三十九 書) 등 당시의 문집류에 散在해 있다.

라는 귀봉의 불만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자가례』가 처음 전래 되었을 당시에는 「가례도」가 『주자가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⁵⁸⁾ 고려한다면 『가례의절』의 전래 이후의 사정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외에도 『주자가례』의 내용 가운데 朱子의 思想과 모순되는 부분등이 지적되고 있다.⁵⁹⁾

例文이 충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세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와 『주자가례』에 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자가례』가 未完成本이라는 강한 인식 위에 그 문제점을 자유로이 토론하였으며 보다 ‘올바른 『家禮』’를 실천함으로써 보다 ‘진정한 주자학도’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정통주자학자라 자처하였던 일련의 학자들은 『주자가례』에 있어서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다음의 두개의 예문을 참고하고 싶다.

白笠은 中國과 우리나라의 國制이다. 慘은 家禮의 說이나 宋儒가 素冠을 論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禮를 행하는 자들은 먼저 駭俗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된다.⁶⁰⁾

朱子は 刪定하여 이것을 간단히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家禮가 미완성의 책이기 때문이다.⁶¹⁾

그들은 『朱子家禮』가 未完成本이며, 또한 그것을 그대로 조선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위서설의 타이프화를 시도하였던 上山春平氏의 논문을 모델로 한다면⁶²⁾ 이같은 조선주자학자들의 태도는

58) 「가례도」가 『朱子家禮』의 이해를 위해 중요히 사용된 것은 『朱子家禮』와 「가례도」가 일치하지 않는데 의문을 제기했던 李斐彦의 「……吾東俗則皆從圖說」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59) 『朱子家禮』 通禮, 司馬氏居家雜儀 「自是以往可以讀孟荀楊子……」에 대하여 「按荀楊之學 程子以爲大駭 朱子以爲荀子全是申韓 楊子是黃老 然則豈初學所宜讀 夫楊之比荀又特甚焉……」(『가례고승』 卷三)의 의문제기가 보인다.

60) 『귀봉집』 卷六, 禮問答, 答季涵問 「白笠則中朝與我國之制 慘則家禮而宋儒以非素冠爲論 恐不盡用 家禮未定之書 今之用禮者 先以駭俗爲懼」

61) 『家禮考證』 卷三 「朱子未及刪定要之 家禮未成之書故也」

62) 上山春平氏는 『주자가례』에 관한 시각은 (a) 완성한 저서, (b) 완성한 편저, (c) 미완의 저서, (d) 미완의 편저로 나누고 王白田의 입장을 (a)로, 夏旿의 입장을 (c)로 간주했다.

(c)에 해당한다. 즉 그들은 『성리대전』의 양복의 附注나 황간의 『주자행장』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가례의절』에 근거하여 『주자가례』를 주자의 미완성본으로 규정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未定の 書’ 혹은 ‘然其間有與先生晚歲之論不合者 故未嘗爲學者道也’⁶³⁾라고 규정하는 그들의 학문적 입장은 결국 『주자가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권위의 실추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보인다.

家禮는 이것을 생략하였으나 勉齋黃氏는 昏禮는 大節이라 그 禮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再拜의 禮도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⁶⁴⁾

朱子晩年の 定論은 家禮大祥章最下註에 상세히 실었다. 李繼善云云과 楊復云云은 楊氏가 朱子の 말을 發揮하여 거기에 덧붙인 것이다.⁶⁵⁾

즉 그들의 『주자가례』의 결함이 朱子の 高弟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조선학자들의 『주자가례』에 관한 관점은 (b)에 접근한다. 그러나 『성리대전』의 附注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을 고려한다면 『주자가례』는 未完成으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以上에서 조선주자학자들의 『朱子家禮』에 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한마디로 그들이 『주자가례』를 미완성으로 규정했다고 단언하여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朱子家禮』가 미완성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조선주자학자가 그렇게까지 『주자가례』를 열정적으로 탐구한 이유였는지 모른다. 『朱子家禮』의 보완은 朱子가 조선주자학자에게 남긴 최고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중기 禮論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주자가례』 주석서를 통해 위에서 내린 결론을 한번 더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2) 『주자가례』의 주석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주석서 『가례집람』과 『가례집람』 이후의 약 100년간의 禮論을 정리한 『가례증해』를 중심으로 朝鮮 『朱子家禮』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이 두 권의 주석서는 무림옹씨의 위서설을 소개하고

63) 前章의 黃營의 說 참고.

64) 『한강전집』 卷8 答問.

「……而家禮略之 勉齋黃氏以爲昏禮大節 不可以不嚴其禮 再拜之禮 不可以廢之」

65) 上同, 卷七 答問

「朱子晩年定論 詳載家禮大祥章最下注 李繼善云云與楊氏曰云云 蓋楊氏發揮朱子之言而加詳焉耳」

있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1) 金長生의 『가례집람』

『가례집람』의 『朱子家禮』에 관한 관점은 『家禮序』에 明示되어 있다. 이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a) 『朱子年譜』의 李方子の 說, (b) 『朱子語類』의 ‘祭禮’에 관한 說⁶⁶⁾, (c) 黃幹의 說, (d) 陳淳의 說, (e) 黃榦의 說 그리고 『가례의절』의 위서설 全文과 양복의 附注등—이 몇개의 인용문에서 金長生이 『가례의절』의 입장, 즉 『朱子家禮』를 朱子の 未完의 저작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계승하였으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문집, 『朱子語類』 등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전기주자학자가 『가례의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데 비해 보다 철저한 고증을 행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그가 「제의」를 『주자가례』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주자가례』가 주자의 저작임을 증명하려 한 것은 兼永芳之氏나 東景南氏의 反위서설과 유사한 논점이다.

2) 李宣祖의 『가례증해』

『가례집람』보다 약 百年以後 저술된 이 책에는 『가례집람』을 비롯하여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諸禮說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무림응씨의 위서설과 구준의 반 위서설을 全文 인용한 이 책에는 그 밖에도 『年譜』 『行狀』 등의 인용문만이 아니라 조선예학자의 說도 폭넓게 인용되어 있다. 그 가운데 李宣祖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부분을 참고하기로 하겠다.

선생의 病이 위독하므로 門人들이 온공의 喪禮를 물었다. 선생은 疏略하다고 하셨다. 儀禮는 어떠하냐고 물었다. 선생이 좋다고 하셨다. 문인들은 한결같이 儀禮로서 喪에 임하였다.⁶⁷⁾

선생의 病이 위독하였으므로 돌아가실 것에 대비하여 喪에는 書儀를 사용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儀禮를 사용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또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儀禮, 書儀를 參用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셨다.⁶⁸⁾

66) 『가례집람』 「家禮序」

「語類……某嘗修祭儀 只就中間行禮處 分作五六段甚簡易曉 後被人竊去亡之矣」

67) 『가례증해』 卷一, 家禮序

「朱子行狀 先生病草 門人問溫公喪禮 曰 疏略 問儀禮 頷之 門人治喪者一以儀禮從事」

68) 上同

「……萬一不諱 當用書儀乎 朱子搖首 然則當用儀禮乎 亦搖首 然則以儀禮書儀參用之乎 乃頷之」

두개의 예문은 治喪에 관한 朱子의 遺命을 기록한 것이다. 위의 것은 『朱子行狀』이며 그 다음 것은 『실기』이나 두 예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儀禮』에 따를 것인가 『書儀』에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古禮」를 존중할 것인가 「簡便」을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古禮」와 「簡便」을 절충한 『朱子家禮』의 권위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李宣祖가 南溪, 宋時烈, 周復 등의 설을 인용하면서 『書儀』를 강조한⁶⁹⁾ 것은 「古禮」에로의 復歸를 회구하는 일련의 학자군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家禮輯覽』과 『가례증해』는 「家禮序」를 해석함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前者가 위서설을 논파하려 하며 『朱子家禮』가 주자의 未成本임을 강조한데 反해 後者は 『의례』와 『주자가례』 가운데 어느 쪽에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주자가례』 보완을 위한 가장 강력한 論據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주자가례’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詳論할 예정이나 어쨌든 ‘未完成’으로서의 『주자가례』가 조선화의 한 起點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조선에 있어서 『朱子家禮』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절대성은 ‘주자가례’를 ‘절대적 인 어떤 것’으로서, 즉 ‘변용’을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 『주자가례』가 그렇게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오히려 그것이 미완성의 저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Ⅳ. 『주자가례』 시행에 있어서의 그 모순과 한계

『주자가례』의 ‘조선화’의 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자학의 이론체계와는 별도로 『주자가례』라는 서적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에 관한 조선주자학자의 인식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번에는 그 차원을 달리하여 『주자가례』를 현실속에 구체화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순과 한계를 중심으로 그 變容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변용’이란 『주자가례』를 절대적으로 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즉 ‘절대성’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의 범위가 정통주자학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자가례』는 확실히 실천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주자가례』가 미완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日常生活에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정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喪禮의 의식은 의

69) 上同 참조.

리와 人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人間關係에 이 두가지 원칙을 적용시킬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리로, 혹은 人情으로 認定하여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주자가례』가 그 전부를 例示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조선 주자학자들은 모호한 원칙을 지침으로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조선주자학자가 제시했던 몇개의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조선화’의 배경을 추적하여 보도록 하자.

1. 『주자가례』의 시행을 위하여

먼저 당시의 文集에서 몇개의 例文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a) 家禮用非古人之意 恐或從俗而然也⁷⁰⁾

(b) 家禮墓祭 只於三月擇日行之 一年一祭而已. 今俗於四名日皆行墓祭 從俗從厚 亦無妨⁷¹⁾

(c) 儀禮變服 各有節次 而家禮從簡 不履言其節次 今則勢須一從家禮⁷²⁾

(d) 禮自初喪至虞卒哭 受服非一 而家禮皆 是 不泥古而簡便也⁷³⁾

(e) 未知可否 但當爲而不爲 不當爲而爲之 俱爲失禮 而丘禮之外 無所見於古禮 則恐不若從古之爲宜⁷⁴⁾

(f) 國禮 通禁大小公私之祀 墓祭之行亦似未安 故弊家并不敢行⁷⁵⁾

(g) 生於今之世 若非大段過誤 則依國法行之 無害也⁷⁶⁾

(h) 但今人經三年上食 已成俗 禮宜從厚義 亦無害. 經三年上食爲善.⁷⁷⁾

(i) 婦人襲冠所不言 難以義起⁷⁸⁾

이상은 당시의 朱子學者가 『朱子家禮』의 실시를 둘러싸고 일으킨 논쟁의 일부이다. 상황에 의해 서로 다른 準據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0) 『가례고증』 卷五.

71) 『율곡전집』 卷二十七 격몽요결 제의초卷五

72) 『한강선생문집』 卷之八 答問

73) 『귀봉선생집』 卷之六 例問答

74) 『한강선생문집』 卷之六 答問

75) 『한강선생문집』 卷之二十八 書

76) 『사계전집』 卷四 書

77) 『퇴계선생전서』 卷三十七 書

78) 『퇴계선생전서』 卷四十 書

(1) 時俗에 다르다

禮에 관한 胡兄의 질문에 朱子는 「禮 時爲大 有聖人者作 必將因今之禮而裁酌其中 取其簡易易曉而可行 必不至復取古人繁縟之禮而施之於今也」⁷⁹⁾라고 대답한다. 禮의 본질, 즉, 절대성을 근거로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속에 변화하여 가는 禮의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이 朱子의 대답은, 조선주자학자들에게 있어서 『주자가례』 저술의 동기로 이해되어졌다. 즉 『주자가례』는 古禮, 특히 『儀禮』의 현실화를 꿈꾼 朱子의 理想의 발현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이다.⁸⁰⁾ 특히 『儀禮』와 『주자가례』의 相異가 『주자가례』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조선의 경우, 『주자가례』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儀禮』의 현실화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조선주자학자가 『주자가례』에 부여한 최고의 권위였다. 『주자가례』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그것의 실행을 위한 하나의 원칙으로써 제안된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2) 古禮에로의 復歸

그러나 時俗과 簡便을 중요시 한다고 하여도 유교예학의 모태가 古禮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교예학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聖人の 禮' 혹은 '先王의 禮'를 근간으로 한 것에 있으며 朱子禮學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喪服制度에 관한 時舉의 질문에⁸¹⁾ 朱子는 「駭俗猶些小事, 但恐考之未必是耳 若果考得是 用之亦無害」⁸²⁾라고 대답한다. 朱子의 이같은 태도는 "『儀禮』를 經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던 『의례경전통해』⁸³⁾나 『주자어류』의 「의례총론」 등에 잘 표현되어 있다.⁸⁴⁾ 특히 『주자가례』를 未完成本으로 받아들인 조선주자학자들은 『주자가례』의

79) 『주자어류』 卷八十四 禮一 論考禮綱領

80) 例文 (a)(c)(d) 참고. 『의례』에 관한 朱子의 생각은 『주자어류』의 「의례, 총론」이라든가 「論禮綱領」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四先生의 禮說을 「二程與橫渠多是古禮 溫公則大概本儀禮 而參以今之可行者 要之 溫公較穩 其中與古不甚遠 是七 八分好」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자가례』가 溫公의 禮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례』와 『주자가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주자학자들의 이 같은 이해는 「儀禮廢而家禮作 蓋家禮者酌古今之宜 適文質之中 以爲千萬世通行之定制也. 夫禮之爲道 有常有變有因有革 此古聖人制作之大義 而家禮之所主也」(『가례증해』 卷一, 家禮增解小叙)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81) 『주자어류』 卷八十九 禮六 관혼상

「喪服 今人亦有欲用古制者 時舉以爲古服既用今制 而獨喪服用古制 恐從駭俗 不知當如何?」

82) 上同

83) 『의례경전통해』 乞修三禮劄子.

84) 朱子는 『의례』를 聖人の 作이라 믿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애석해 했다.

簡便을 비난하면서 『의례』를 기반으로 한 『주자가례』의 보완작업을 계속 하였던 것이다. 古禮가 『주자가례』 실시의 강력한 준거가 된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후에 鄭述가 「深衣制度」를 고증하여 深衣를 입고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일화는⁸⁵⁾ 바로 주자의 이같은 대답을 근거로 한 것이다.

3) 國制의 존중

古禮와 時俗, 이 두개의 양극단 가운데에 또 하나의 준거가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時王之禮’ 즉 國制이다. 周知한 바와 같이 관학파로 불리워지는 선초의 주자학자들은 국가문물제도의 정비에 주력하며 그 노력의 결과로서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등을 완성했다. 고려의 예제나 고유의 풍습을 기반으로 中國의 제도를 대폭 도입한 이 禮典은 조선전국의 초석이었으나 禮의 해석상에 있어서 『주자가례』와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주자가례』를 신봉하는 一群의 주자학자들은 古禮 등의 고증을 통하여 國制를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며 결국 이들은 재편성되어진다. 그러나 이들 禮典이 『朱子家禮』와 「古禮」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家禮實施의 중요한 根據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例文 (e), (f)가 그 例이다.

4) 其 他

時俗과 古禮, 그리고 國制등은 사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자가례』의 보완이라는 역할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既述한 바와 같이 日常生活에는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욱 복잡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주자학자들은 이 예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을 스스로 발견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은 自身の 임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이 예외적인 사례에 조선주자학자들이 논리적인 근거로서 흔히 인용하였던 것은 ‘義로써 일으키다’와 ‘厚함을重히 하다’였다.

『禮記』의 「故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⁸⁶⁾은 禮의 不變性, 절대성에 유동성, 혹은 가변성을 부여하여 古禮와 時俗간의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다. 伊川의 「祭祀之禮 難畫如古制 但以義起之可也」⁸⁷⁾은 『예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또한 예문 (i)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義로써 일으키다’의 경우 무엇을 義로 규정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로 제

85) 『한강전서』言行錄 卷二 飲食衣服之節

86) 『禮記』禮運

7) 『二程集』河南程氏遺書 卷二十二 上

기될 수 있다. 孔子의 「爾愛其羊 我愛其禮」⁸⁸⁾와 孟子의 「君子不以天下儉其親」⁸⁹⁾은 儀式的 한계가 모호할 경우 손쉽게 이용되어진 또 하나의 준거였다. 즉 「厚함을 重히 하다」⁹⁰⁾로 표현되어진 이 준거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한 준거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조선주자학자가 『주자가례』의 실시를 위하여 제안했던 論據를 네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은 復古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 본래의 전통 위에 時俗과 國制를 현실과의 타협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원칙, 즉 「義로써 일으키다」와 「厚함을 重히 하다」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럼, 비교적 완전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것 같은 그들의 제안이 어떠한 결점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2. 그 모순과 한계

필자는 章의 첫부분에서 朝鮮朱子學者들은 모호한 원칙을 근거로 복잡한 인간 관계에 『주자가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러하였다. 그들은 고중에 고중을 거듭하면서 『주자가례』의 현실화를 추구하였으나 결국은 서로 모순되는 논리에 귀결하여 버렸다. 「古禮에로의 복귀」와 현실성의 반영 그 가운데 현실적인 권력 즉 國制와의 타협, 이 세가지의 준거는 「中」이라든가 「折衷」이라는 유교 본래의 논리⁹¹⁾로 타협점을 발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에 촉박한 학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러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다음의 例文을 통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 (改葬除服之節) 當從朱子所定……⁹²⁾

(b) ……楊說朱子說亦然 與儀禮不同極可疑⁹³⁾

88) 『論語』 八佾

89) 『孟子』 公孫丑篇下

90) 「厚함을 重히 하다」는 『禮記』 禮運篇의 「君子以厚 小人以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자어류』나 『二程集』에 散見한다.

91) 유교가 「中」이나 「折衷」을 강조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즉 「中」의 강조는 『논어』의 「允執其中」(堯曰篇)을 비롯하여 『禮記』의 「中也者天下之大本也」(中庸篇) 「君子而時中」(中庸篇) 등에 잘 나타나 있다.

92) 『사계전서』 「의례문해」 卷四十

93) 上同 卷四十八

- (c) ……若以駭俗爲狗 則每每從俗乎⁹⁴⁾
 (d) ……又今國俗皆過譚後乃始食肉 雖從俗亦何害乎⁹⁵⁾
 (e) ……前期行祭 雖有朱子之教 次日行祭尤便宜⁹⁶⁾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때로는 『朱子家禮』를 때로는 「俗禮」를 그리고 때로는 『儀禮』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임의적인 선택을 「절충」이라는 개념으로 보완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절충」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곧 그들이 제시한 준거는 준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버리며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 (a) 然家法各不同 吾家則我哭⁹⁷⁾
 (b) 自定一家之禮 恐不必問人 人亦不敢與論⁹⁸⁾
 (c) 今俗多不識禮 其行祭之儀 家家不同甚可笑也. 若不一裁之以禮 則終不免紊亂 無序歸於夷虜之風矣⁹⁹⁾

우선 예문 (a), (b)는 『朱子家禮』라기 보다는 書儀類와 유사하다. 『주자가례』는 본래 이 같은 書儀類 혹은 家法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사회질서의 재확립을 도모한 것이었으나¹⁰⁰⁾ 조선은 『주자가례』 저술의 以前단계에 놓여져 (c)와 같은 문제의식을 대두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자가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에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자가례』 시행에 있어서 독자적 판단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었던 조선주자학자의 자세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한다면 이 독자적 판단의 합일점을 발견하려 한 것이 바로 『주자가례』 주석서이며 『주자가례』 주석서가 조선후기까지 끊임없이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이 독자적 판단의 폭이 그만큼 허용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일 것이다. 본고는 이를 ‘조선주자가례’의 ‘변용’의 한 기점으로서 강조하여 두고 싶다.

끝으로 필자는 위에서 든 세가지의 준거가 서로 모순될 때 조선주자학자들은 두가지의 원칙으로 이를 보완하였다고 했다. ‘義로써 일으키다’와 ‘厚함을 중히 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한계상황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94) 上同 卷三十五

95) 『頤庵集』 卷九

96) 『사계전서』 卷三十六

97) 『한강전서』 卷六 答問

98) 『退溪先生文集』 卷三十九 書

99) 『栗谷全集』 卷二十七 격몽요결 제의초

100) 황원구, 「주자가례의 형성과정」, 『인문과학』 45, 1981) 참고.

서는 이 두 준거가 초래한 모순점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참고하도록 하자.

忌祭行素 止行一日否 世俗亦於齊戒日不敢食飲 此是過於厚處 從俗如何¹⁰¹⁾

위의 例文은 鄭述가 退溪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退溪는 ‘禮宜從厚 此類之謂也’¹⁰²⁾라고 대답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그 하나는 ‘義’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厚’의 개념도 그 정도에 있어서 학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厚’ 역시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朱子禮學은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분에 맞지 않는 ‘厚한 禮’는 결국 신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주자가례』의 ‘절대적’ 시행을 위하여 일종의 보편적인 원칙을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朱子家禮』는 수용기부터 未完成의 저작이었으며 또한 「절충」을 『주자가례』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제시하였으나 그 「절충」은 독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주자가례』 시행에 있어서 아무런 원칙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끊임 없는 의견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합일점을 찾고자 했다. 이 노력의 결과가 『주자가례』 주석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나 그 성격규정과는 별도로 거기에 『주자가례』의 ‘조선화’의 길이 열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결론을 내리기전에 먼저 다음 예문을 참고하고 싶다.

또 하나의 東國, 조선에 있어서 처럼 清朝는 明朝와 달리 夷狄이며 중화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야말로 天下唯一의 「소중화」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유교문화의 실태가 일본에는 없었다.¹⁰³⁾

17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明의 멸망이었다. 明의 멸망이 가져온 국제질서의 변화나 사상사적 전환에 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 明의 멸망이 조선주자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짐작만

101) 『퇴계전서』 卷三十九 書

102) 上同

103) 渡邊 浩, 『近代日本社會と宋學』(東京大學出版會, 1987), pp. 49-50.

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위의 例文은 明의 멸망이후 日本의 주자학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지웠는가를 논평한 것이다. 단언하자면 일본주자학자들은 조선주자학자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神道와의 타협을 모색하고 朱子學者로서의 자신을 버렸다. 日本이 朱子學으로서 自身의 主體性을 밝히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例文을 참고하기로 하겠다.

家禮者 ……於禮多有未備 中原儒家一無表章者 故更無論議解釋之書. 唯我儒賢遵奉 有過三禮 著述不已 其爲書也¹⁰⁴⁾

李圭景의 「家禮弁證說」의 첫부분이다. 이 例文에서 우리들은 渡邊 浩氏의 지적을 떠올리게 된다. 朝鮮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朱子學者라 믿었으며 이 땅에 朱子學的 世界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이 아무리 훌륭한 유교의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本國인 中國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朝鮮의 主體性은 中國을 부정하지 않는 한 확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게는 자신의 주체성을 밝히기 위해 明의 멸망이 필요하였다. 明의 멸망에 의해 조선의 儒者들은 망설임없이 자신들의 나라가 유일한 理想國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朱子學 가운데에서 自身들의 理想과 自國의 주체성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朱子學에 관한 양국의 입장의 相異는 『주자가례』의 수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다음 例文을 참고하기로 하자.

(a) (『朱子家禮』는 선생의) ……만년의 說과 다른 것이 있지만 그것은 衣服器用的 사소한 것에 불과하며 禮의 근본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¹⁰⁵⁾

(b) 景任欲從朱子初年之論 殊未妥當¹⁰⁶⁾

(c) 婦人服制……必朱子晚年定論 與家禮不同也 好禮之家遵行甚佳¹⁰⁷⁾

(d) 成殯後……古禮然也. 家禮不分曉可疑¹⁰⁸⁾

(a)는 日本朱子學者 가운데 『주자가례』의 시행을 가장 역설하였던 淺見洞齋의 인용문이며 (b) (c) (d)는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예학자 金長生의 인용문이다. 前者가 ‘未完成’로서의 『주자가례』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데 反해 後者는 『주자가

104) 『五洲衍文長箋散稿』卷八「가례변증설」

105) 『家禮師說』

106) 『사계전서』「의례문해」卷四十

107) 上同, 卷三十六

108) 上同, 卷三十七

례』가 미완성이라는데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그 같은 인식하에서 그들이 선택한 ‘變容’의 방향이다. 즉 日本朱子學者가

此方(日本)에서도 禮의 본은 天地自然의 理이기 때문에 變하는 것이 없으나
文은 나라나라마다 다른 것처럼¹⁰⁹⁾

日本은 日本의 風俗事禮도 있고 國家의 制法名分도 있기 때문에 家禮를 그대로
로 실시할 수는 없다. ……家禮에 구애되어 家禮대로 실시하는 것은 朱子の 本
意가 아니다.¹¹⁰⁾

라고 말하고 簡便과 俗禮의 존중을 『주자가례』의 本意라 간주한데 反하여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古禮로의 復歸」라는 힘든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¹¹¹⁾

그럼 본고의 논점으로 되돌아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자.

『주자가례』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절대성’은 ‘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성’은 아니었다. 分析을 통하여 밝힌 것처럼 『朱子家禮』는 그 자신이 이미 ‘변용’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朱子家禮』가 未完成本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古禮」와 簡便을 축으로 절충을 추구하는 朱子學 본래의 理論體系였기 때문이다. 朝鮮朱子學者들은 Ⅲ, Ⅳ章에서 확인한 것 처럼 이 두가지 사실에 관하여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주자학자들이 이 變容의 가능성으로 부터 무엇을 창출하였는가는 後期로 이어지는 『주자가례』 주석서를 분석하지 않는 한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통하여 조선주자학자들의 바램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때때로 俗禮와의 타협을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簡便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주자가례』에 만족하지 않고 朱子가 꿈꾸었던 三代의 회복을 위해 「古禮에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 완전한 유교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가며 그러나 그 ‘절대성’을 잃지않는 ‘조선주자가례’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109) 『家禮師說』 序

110) 『訓蒙疏』 通禮

111) 日本 『朱子家禮』와 朝鮮 『주자가례』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연구테마이므로 간단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洞齋나 闇齋의 견해를 인용하여 본 것은 그들이 17세기 전후의 학자이기 때문이며 日本朱子學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조선중기 학자와 동일하게 논의될 수도 없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나 日本의 당시의 사정을 무시한 채 『주자가례』만을 논할 경우 日本 『주자가례』가 簡便과 時俗을 더 강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